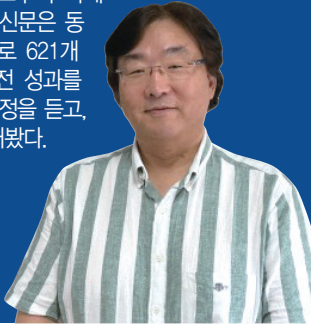


연구는 특허가 되고, 특허는 로열티가 돼 다시 연구로 돌아온다. 지난해 우리학교 기술이전 수입료 56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32억 원이 컴퓨터공학과 박광훈(공학) 교수의 국제 영상 표준특허에서 발생했다. 우리신문은 동 영상 코덱 국제표준특허를 바탕으로 621개의 국제특허와 1,126건의 기술이전 성과를 거둔 박 교수로부터 기술이전의 과정을 듣고, 우리학교 산학협력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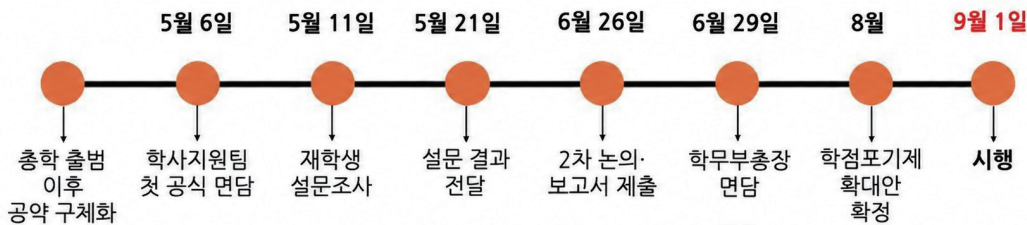


국제캠 해정박물관에서 초등학생 대상 고지도 교육프로그램이 열렸다. 우리신문은 학생들이 전시 관람부터 대동여지도 퍼즐·채색 활동까지 체험하며 지도 속 과거의 세계를 탐험했던 현장을 찾았다.

대학주보

학점포기제 전 과목 대상 확대 “학점 관리 선택권 넓힌 것에 의미”

학점포기제 확대 타임라인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오는 2학기부터 학점포기제가 확대되며 전공·교양 필수과목을 포함한 전 교과목에 대해 학점포기 신청이 가능해진다. 일반학과 기준 7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건축학과 9학기, 의약학계열 11학기 이상)은 졸업 시까지 최대 6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학생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와 학교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개편안은 학생들의 학점 관리 선택권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신문은 이번 개편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마련됐으며 시행 이후 어떤 과제를 남겼는지 살펴봤다.

한 달 만의 변화 아닌 학생사회 지속 설득 결과

학사지원팀은 지난 7월 우리신문 취재 당시 학점 인플레이션과 학업 책임성 등을 이유로 학점포기제 전면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으나, 약 한 달 뒤 제도 확대를 확정했다.

이에 관해 양캠 총학생회(총학)는 총학 출범 직후부터 제도안을 마련하고 학교와 협의를 이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제캠 정재우(포스트모던음악학 2020) 총학생회장은 “학교가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 총학 출범 직후부터 학점포기제 확대를 학교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서울캠 신창훈(행정학 2021) 총학생회장 역시 “학교를 꾸준히 설득한 결과”라며 “제도안을 먼저 준비한 뒤 학교와 계속 만나며 때로는 강하게 요구했고, 때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총학은 당초 ‘학점지우개’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기존 학점포기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구체화했다.

학사 의제를 총괄하는 서울캠 총학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학자추) 최지현(정치외교학 2023) 사무국장은 “기존 제도를 활용하면 행정과 전산 부담이 적어 현실성이 있다는 점을 토대로 학교를 설득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서울캠 총학과 학사지원팀의 공식 면담을 시작으로 제도 추진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총학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점포기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제작한 보고서를 학교 측에 전달했다.

이후 학무부총장 등 학교 주요 보직자와도 면담하며 제도 확대를 요구했다. 총학이 진행한 설문에는 재학생 3,822명이 참여했으며, 학자추는 특히 고학점 학생에게서

도 학점포기제 확대에 대한 높은 요구가 나타났다는 점을 제시했다.

최 사무국장은 “단순히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 낮은 성적을 만회하려는 제도라는 학교의 우려와 다르게 4.0 이상의 고득점 학생도 제도 확대에 높은 동의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학사지원팀 태윤희 팀장은 “역대 총학생회의 지속적인 요구와 학생 민원이 제도 확대를 결정짓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7학기 이상 학생 전 교과목 포기 가능 학생별로 상이한 필수과목 고려

총학은 당초 5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필수 과목을 제외하고 학점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종안은 일반 학과 기준 7학기 이상 재학생에게 필수과목을 포함한 전 교과목의 포기가 가능한 방식으로 확정됐다.

최 사무국장은 “5학기 안을 고수하기보다 타 대학 사례와 제도 도입 가능성을 고려해 7학기를 협상안으로 내세웠다”고 말했다.

학사지원팀은 학생들이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을 앞둔 시점에 제도를 활용한다는 취지를 고려해 7학기 안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3면에 계속 →

이공계 경쟁력의 빈틈 인력과 공간 인프라 부족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과 이공계열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대학 간 인프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학교는 연구 역량을 뒷받침하는 환경 지표에서는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신문은 이공계열의 인프라 부족 현장을 살펴봤다.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인 타임즈 고등교육이 지난 4월 발표한 ‘2026 THE 대학 아시아순위’ 지표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종합 62.5점으로 42위를 기록했다. 특히 연구의 영향력과 우수성을 평가하는 ‘연구 품질’ 부문에서는 81.4점을 받았다.

이는 우리학교보다 종합순위가 높은 국내 6개 대학의 평균인 84.3점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국제캠 이은열 학무부총장은 “우리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첨단분야가 존재해 고품질의 융합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했다.

반면 연구 역량을 뒷받침하는 환경 지표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우리학교는 교원당 학생 수 등을 평가하는 ‘교육 환경’과 논문 수·연구비 등을 반영하는 ‘연구 환경’ 지표에서 평균 48.3점을 기록했다. 이는 수도권 상위 대학 ▲서울대 77.0점 ▲연세대 63.3점 ▲고려대 58.1점 ▲성균관대 63.9점 ▲한양대 51.4점보다 낮은 수치다. 높은 연구 품질에 비해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교육·연구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의미다.

낮은 대학원 진학률 인적 자원 부족

우리학교 이공계열 인프라의 가장 큰 문제는 연구를 수행할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우수한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교수뿐 아니라 연구실에서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학교는 대학원 진학률이 경쟁 대학에 비해 낮아 연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원 교육지원팀에서 제공한 2025년 공시 자료에 따르면 우리학교 졸업생의 대학원 진학률은 12%다. 이는 대학알리미 공시 기준 ▲서울대 31.0% ▲고려대 21.7% ▲연세대 21.8% ▲서강대 16.6% ▲성균관대 17.8%에 비해 저조한 수치다.

산학협력단 홍인기 단장은 “연구원이 확충돼 논문 수가 늘어나야 대형 연구과제를 수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현재는 인적 인프라 기반 자체가 부족해 연구비 확보와 연구 환경 개선이 함께 어려워지는 악순환 구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우리학교는 연구 인력 확대를 위해 학·석·박사 통합과정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원 교육지원팀 최문선 팀장은 “과정이 도입될 경우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학부에서 석·박사과정까지 연계해 보다 유연하게 석박사 선택이 가능하며 이수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학무부총장은 “첨단과학인재 육성을 위해 현재 우수연구 및 자교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금의 규모도 확대하려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장비만으로 꽉 차는 연구실 학생 수용 어려운 상황

인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연구자와 학생을 수용할 공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학교는 연구인력 확대에 앞서 이공계열 연구실 공간부족 문제부터 심각한 상황이다.

3면에 계속 →

2 종합

‘나만 놓칠까’ 시작한 주식 투자, 손실은 일상까지 고위험 투자 성향 위험부담 키워

김재희 기자 jaylove0413@khu.ac.kr
한민 기자 likeasloof@khu.ac.kr

최근 주식 하락장 속에서 우리학교 학생개미들이 손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가 급증하며 전국적으로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고, 포모(Fear Of Missing Out) 현상이 퍼지며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대학생이 많아졌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가 급격히 추락하면서 11일 기준 6,300대까지 내려앉았다.

이에 과거 주식 투자 열풍에 동참했던 대학생 투자자 상당수가 금전적 손실은 물론 심리적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다. 토스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계좌를 개설한 정회원의 약 57%가 30대 이하였다. 또한 투자자들이 주식 매수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빌린 돈의 규모를 보여주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0대 기준 올해 4월 둘째 주 4,239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 1,888억 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A(철학 2023) 씨는 국내 주식에서 15% 정도 손실을 봤다. A 씨는 “주식거래에 계속 신경썼던 탓인지 집중력 하락과 피로감을 느끼며 원래 안 좋았던 체력까지 악화됐다”고 말했다.

주식 손실은 학생들의 일상적인



최근 한 달 새 코스피 지수가 급격히 추락하면서 과거 주식 투자 열풍에 동참했던 대학생 투자자 상당수가 금전적 손실은 물론 심리적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다. (사진=김재희 기자)

소비에도 영향을 미쳤다. 약 60만 원의 손실을 입은 B(행정학 2025) 씨는 “적은 돈이지만 학생이기에 심리적 부담이 컸다”며 “외식을 줄이고 집밥을 먹는 식으로 생활비도 아끼게 됐다”고 말했다. 천만 원 정도의 손실을 경험 중인 C(경영학 2025) 씨 역시 “작은 소비 하나하나에 제동을 걸게 됐다”며 “3, 4년 정

도는 주가가 회복되지 못하고 손실 상태로 묶일 것 같아 허탈함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은 하락장에 유독 취약하다. 시장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만 쫓아 매수하는 시세추종 방식의 투자를 주로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공격

적인 투자 성향까지 더해지면서 위험 부담은 더욱 커진다. 양제열(경영학) 교수는 “시세추종 방식의 투자는 급격한 하락장을 맞았을 때 다른 전략에 비해 손실 폭이 훨씬 크다”며 “나이가 적을수록 공격적 투자 성향이 강해 대학생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을 많이 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 수익률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명지대 빈기범(경제학) 교수는 “몇 개월 만에 일확천금하는 사례는 애초에 매우 드물며, 향후 10년간 연율로 5~7% 정도가 되면 정말 성공적인 투자”라고 말했다. 양 교수 역시 “미국 S&P500 지수의 수익률은 장기간 평균 내면 연간 7% 정도인데, 이 수익률을 기준으로 본인의 투자능력을 판단하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레버리지, 인버스 등 위험투자에 대해서는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양 교수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은 주가가 횡보하기만 해도 손실이 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가 시장 참여자 평균보다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고, 예측불가능한 요소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학생들은 금리와 진입장벽이 낮은 학자금대출을 이용해 ‘빚투’를 하기도 한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실 김명준 대리는 “재단에서도 학자금대출을 그런 의도로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가 컸다”며 “2학기부터 생활비대출 개인 총한도가 도입된 배경엔 이를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는 이유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카메라로 QR 스캔 → ‘대학주보’ 인스타 팔로우



대학주보 인스타그램

@khunews_jubo

더 많은 콘텐츠는
대학주보 인스타그램에서
만나보세요!

대학, 공대분관 · 대학원 지원 · 계약학과로 해법 모색

1면 ‘공대 인프라’에서 계속 →

학부연구생 A씨는 “아직 연구실에 책상조차 없어 자택에서 원격으로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실을 운영하는 교수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신소재공학과 최석원(유기재료공학) 교수는 “실험장비가 차지하는 공간만으로도 연구실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학생을 더 받고 싶어도 공간 문제 때문에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학교 측은 공대 분관과 미래과학관 설립으로 공간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대분관의 경우 오는 12일부터 공사가 진행된다. 또한 미래과학관은 오는 20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돼 설립 계획과 일정은 논의될 예정이다.

새롭게 확보되는 공대분관과 미래과학관의 공간 활용 방식은 공간관리위원회와 공대 AI위원회 주도하에 이루어진다. 임재혁(기계공학) AI 위원장은 “현재 이공계열 인프라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연구실 좌석과 공동 프로젝트 공간”이라며 “공동 공간에 대한 운영체계 또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인프라가 곧 경쟁력”
학부생 유치에도 영향**

문제는 열악한 인프라가 현재의 연구환경을 넘어 우수 학부생을 유치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8학년도 입시부터 선택과목이 폐지되면서 수험생의 과목 선택에 따른 계열 간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상위권 학생



각종 실험장비만으로도 연구실 공간이 부족한 현실이다.

(사진=원희재 기자)

들이 대학과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폭도 이전보다 넓어질 전망이다.

한정된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며 학생들에게는 교육·연구환경의 차이가 대학을 결정하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종로학원 임성호 원장은 “입시제도가 공통과목으로 바뀌면서 선택할 수 있는 분야의 폭이 넓어진 상 위권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대학 간의 경쟁이 심화될 예정”이라며 “특히 상위권 학생들의 이공계 쏠림 현상을 고려했을 때 인프라가 곧

경쟁력이 된다”고 말했다.

대기업 계약학과와 부재 또한 우수인재 유치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려대학교, 성균관 대학교와 연세대학교는 반도체 및 첨단분야 계약학과를 통해 첨단 인재 유치에 나서고 있다.

반도체공학과 윤주영(전자공학) 교수는 “최근 반도체 계약학과는 장학금, 취업 연계 등의 매우 명확한 혜택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수 학부생을 유치하는 데 강력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원장 또한 “아직도 기업연계

형 계약학과는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이공계 인재 유치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학교도 계약학과를 포함한 기업 연계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 학무부총장은 “반도체와 AI 등 첨단 분야에 대한 계약학과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첨단분야 기업들과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통해 내년 계약학과 도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단장 또한 “우리학교 주변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의 대기업과 가까이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주변기업과의 산학협력을 유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공계 인프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 성과에 걸맞은 인력과 공간 인프라 개선이 핵심과제다.

이 학무부총장은 “공간 인프라 확보와 더불어 우리학교 연구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공간 활용 방법을 모색 중”이라며 “급변하는 첨단 분야 변화에 발맞춰 2년 단위로 이공계 교원 확보 기초계획과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여러 지원제도를 그려나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일반학과 기준 7학기 이상 등록 재학생 최대 6학점까지

1면 ‘학점포기제’에서 계속 →

필수과목도 학점 포기 가능 대상에 포함한 이유에 관해서는 학생별로 필수 과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 밝혔다.

태 팀장은 “다전공·융합전공·학생설계전공·마이크로디그리의 선택과 포기에 따라 같은 과목도 졸업요건이 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며 “학생의 학업 이력을 일일이 추적해 포기 여부를 제한하기보다 전 과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필수과목을 별도로 제한하면 학과별로 다른 이수요건을 일일이 적용해야해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제한을 풀면서 오히려 학생에게 더 많은 자유가 주어졌다”고 말했다.

**졸업 구제 위한 재수강
기준 제한 우회 가능성도**

학점 취득을 포기한 과목은 이수구분과 관계없이 이후 다시 수강할

수 있다. 다만 초수강이 아닌 재수강으로 처리되며, 재수강 시 현행 규정에 따라 취득 가능한 최고 성적은 A0로 제한된다.

태 팀장은 “필수과목 포기로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다시 수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말했다.

이와 관련 사실상 재수강 제한을 우회하는 통로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행 재수강 가능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성적을 받더라도 학점포기

제를 통해 먼저 학점 취득을 포기한 뒤, 같은 과목을 재수강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이를 제도 악용보다는 기존 재수강 제도의 보완점으로 봤다. 신 회장은 “학생이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자신의 성적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 역시 “포기 한도가 6학점으로 제한되고 재수강 시 A0 상한이 적용되는 만큼 실제 악용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강의 재수강생이 늘어

나게 되면 필수·인기과목을 처음 수강하는 학생의 수강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신 회장은 “충분히 합당한 우려”라며 “2학기 동안 학생 의견을 수렴해 수강신청 제도의 추가 개선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총학은 9월 초 학점 포기 기준과 졸업요건을 안내하는 카드뉴스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학사지원팀은 시행 이후 신청자 수와 포기 후 재수강 수율을 확인해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4 종합

기술이전 수입료 사립대 첫 1위 56억 수입 뒀엔 10년의 투자

한민 기자 likeasloof@khu.ac.kr

우리학교의 2025년 기술이전 수입료(56억 원)가 서울대(71억 원)에 이어 전체 2위를 기록하면서 사립대 중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기술이전 수입료’란 대학이 보유한 기술이나 특허, 노하우를 기업 등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술료를 받는 것이다. 대학의 연구가 실제 기업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로 활용된다.

이번 실적은 연구비 규모를 고려할 때 더욱 의미가 크다. 최근 10여 년간 연구비 실적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고려대 ▲KAIST ▲한양대 순으로 고정됐다. 연구비 실적 10위권 초반인 우리학교가 상위 대학들을 앞선 것이다.

산학협력단 기술혁신팀 강천수 부팀장은 우리학교의 기술이전 성과 배경으로 국제영상 표준특허 기반의 안정적인 로열티 수익 구조와 전담 변리사 밀착배정형 랩 컨설팅을 꼽았다.

강 부팀장은 “10년 전부터 국제영상 표준특허를 조기에 발굴하고 글로벌 3대 국제 표준풀에 지속적으로 등재해 최근 3개년간 82.8억 원 규모의 안정적인 글로벌 로열티 수익 채널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대학들이 단기적인 기술료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반면 우리대학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국제영상 표준특허 발굴 및 고도화에 집중함으로써 장기적인 로열티 수익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며 “1년간 농사를 지어 수확하는 것과 10년간 지어 올린 건물에서 꾸준히 수익을 얻는 것의 차이”라고 비유했다.

국제영상 표준특허는 박광훈(공학) 컴퓨터공학부 교수가 확보한 동영상 코덱 국제표준 규격 핵심 기술을 말한다. 박 교수는 HEVC, AV1, VP9, VVC 등 코덱 관련 국제표준 특허풀에 900건이 넘는 특허를 등재해 1,100건이 넘는 기술이전을 성사시킨 표준특허 분야 권위자로, 2025년 기준 32.6억 원의 수익을 확보하며 당해 기술이전 수입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황성연(섬유고분자공학) 교수의 친환경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관련 특허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해당 특허는 2024년 3,500만 원 규모의 1차 기술이전 후 기업 추가 수요를 반영해 2025년 12억 원 규모의 2차 기술이전으로 이어졌다.

강 부팀장은 또 다른 성공 요인으로 지원 체계를 꼽았다. 산학협력단은 변리사, 기술거래사, 기업기술자평가사 등 13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해 신입 교원단계부터 연구실을 밀착 컨설팅하고 기술마케팅과 계약협상까지 지원하는 조직 체계를 두고 있다.

변리사이기도 한 강 부팀장은 “특허 등록은 시간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교수 개인이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특허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이 없다면 힘들다”고 말했다. 강 부팀장은 “전담 변리사 밀착배정형 랩 컨설팅과 국제영상 표준특허 기반의 글로벌 경상수익 모델은 타 대학에서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독자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교수의 표준특허를 제외한 다른 우리학교의 기술이전 성과는 약 23억으로 10위권 안에 들지 못한다. 박 교수는 곧 은퇴를 앞두기도 했다. 우리학교는 기술이전 수입료에 타격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교수 퇴임 후에도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 10년 정도는 계속 로열티가 들어올 것이며, 그 이후로도 수십 년간 기술이전을 책임질 인재를 이미 섭외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부팀장은 “미리 10년을 준비해서 지금의 성공이 있었듯이 지금은 다음 10년을 위해서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산학협력단은 차세대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과 경쟁력 확보 전망에 대해 “첨단 바이오, AI, 차세대 ICT, 국제 표준특허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특히 국제 표준특허 분야에서는 Post-VVC, Open-RAN 등 차세대 표준특허를 지속 발굴해 글로벌 로열티 수익 채널을 연 40억 원 이상으로 확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본인 연구실에서의 박 교수. 배경에 빼곡히 걸린 것은 모두 그가 개발한 표준특허들이다.

(사진=한민 기자)

621개 국제특허, 1,126건 기술이전 박광훈 교수가 만든 연구의 선순환

한민 기자 likeasloof@khu.ac.kr

2025년 기술이전 수입료 56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32억 원이 컴퓨터공학부 박광훈(공학) 교수의 국제 영상 표준특허 로열티에서 발생했다. 우리신문은 동영상 코덱 기술 권위자인 박 교수를 만나 기술이전 수입료 최상위권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를 물었다.

2001년 우리학교에 부임한 박 교수는 동영상 코덱 표준특허 연구를 토대로 현재까지 국제연구 특허 621개와 국내연구 특허 361개를 등록했고, 총 1,126건의 기술이전 성과를 냈다.

기술이전 수입료를 창출하는 방법은 크게 ‘노하우 이전’과 ‘특허권’으로 나뉜다. 노하우 이전은 교수의 기술적 아이디어를 이전하는 것으로, 전수 완료 후 대금이 지급되면 모든 과정이 끝난다. 반면 특허권은 구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속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박 교수는 그중 후자의 방법으로 3년간 82.8억 규모의 막대한 기술이전 성과를 내고 있다.

박 교수는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시키는 과정을 절차에 맞게 진행하면 핵심기술을 개발한 후 최소 5년에서 7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긴 과정

을 거쳐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면 해당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일(최초 출원 후 20년)까지 로열티가 지속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 결과가 현재 박 교수의 국제영상 표준특허 수입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박 교수가 가진 표준특허의 특징은 큰 틀로 이루어진 ‘컨셉 기술’이라는 점이다. 컨셉 기술은 새 규격이 등장해도 적합하게 변경해서 출원하면 다시 로열티를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박 교수는 “컨셉을 디자인하는 능력은 공학도보다 오히려 인문계, 자연과학계 학생들이 뛰어난 경우가 많다”며 “AI가 코딩을 대체해나갈 것이니 앞으로는 근본적인 사고를 통해 컨셉을 디자인하는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 중요할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조언하기도 했다.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는 표준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교수 개인의 관리 역량도 중요하지만, 변리사 등 특허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이 필수적이다. 우리학교에서 이 역할을 맡은 기관이 바로 산학협력단이다. 박 교수는 “변수가 생겨서 하루만 오차가 생겨도 등록 못 하는 게 특허”라며 “산학협력단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시에 도와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아가서 사업을 차리자는 제안을 많이 받았지만, 산학

협력단의 도움이 충분하다고 느껴 학교와 계속 함께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산학협력단 기술혁신팀 강천수 부팀장은 “10여 년 전부터 수백수천 억의 기술이전 수입료를 거둬들이는 해외 대학 사례를 참고해서 기술이전을 육성해 보자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며 “마침 우리학교에는 독자적으로 표준특허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던 박광훈 교수님이 계셔서 다행히 시너지를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공학도로서 ‘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하기도 했다. 해당 구조는 ‘연구→특허 출원→국제표준→SCI 논문→기술이전→로열티 징수’라는 여섯 단계를 거친다. 로열티 징수는 다시 연구로 이어지며 교수, 학생, 대학 세 개의 주체가 이득을 보는 3-Win을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공학자로 살아오며 선순환 구조를 어느 정도 완성했다는 자부심이 있다”며 “그것이 학교에 2억을 기부한 이유”라고 전했다.

한편 박 교수는 “교수 평가는 논문 위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수들의 기술이전 연구 여건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국제표준 연구의 문을 열었는데도 생각보다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며 “제대로 성과를 인정받지 못하는데 누가 도전하겠나”라고 전했다.

세계적인 대학 건설의 첫 항해 ‘4년제 종합대학 승격’

김희찬 (경희기록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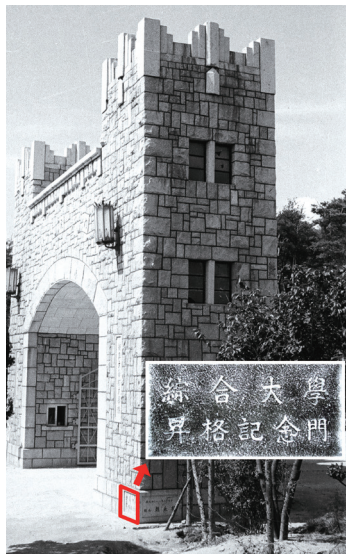
경희의 유산 ⑧
『종합대학 승격 기념 표식』

우리 대학은 1955년 2월 28일자로 꿈에 그리던 4년제 종합대학으로 승격했다. 휴전협정 이후 피란지 부산에서 서울로 이전(1954년 3월 24일)한 지 불과 11개월 만에 이룩한 쾌거였다.

종합대학 승격을 영원히 기억해 전하기 위해 당시 건설 중이던 정문(1955년 2월 17일 착공) 우측 기단부에 기념 표석을 설치했다. 표석 전면에는 ‘종합대학 승격 기념문’, 측면에는 ‘단기 4288년 5월 10일 총장 조영식’이라 새겨 놓았다. 이 기념 표석은 그동안 우리 대학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던 ‘종합대학’과 ‘총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최초의 석각 기록이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

이처럼 피란지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종합대학 승격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서울 이전의 명분으로 삼았던 ‘세계적인 대학 건설’을 향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행 방안이었기 때문이다.

서울 이전 직후, 1954년 5월 20일



정문 우측 하단부에 마련된 ‘종합대학 승격 기념 표식’(1955년 5월 설치)

학장 취임사를 통해 설립자 조영식 박사는 ‘세계적인 대학 건설’의 미래 비전을 천명함과 동시에 이를 실행하기 위한 첫 번째 미션, 즉 4년제 종합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독려하기 시작했다. 약 7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1954년 12월 28일자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당시 인가 문제는 경기도청 강당에서 열린 중앙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되었는데, 거의 전원 찬성과 지지를 얻어 가결되었다.

당시 종합대학 편제를 보면, 대학원의 경우 석사학위 과정만 허가를 받았는데, 법률학과, 정치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각각 12명씩 전체 48명이었다. 학부 단과대학으로는 법과대학 법률학과,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 문리과대학 국문학과, 영문학과, 사학과, 생물학과, 체육대학 체육학과, 체육음악과 등 4개 단과대학 9개 학과 전체 재학생 수 1,520명이었다. 부설기관으로 부속도서관, 부속박물관, 부속식물원, 부속녹음관을 설치하기로 했고, 교지는 130,000평 이상, 교사는 5,220평 이상, 체육장은 11,000평 이상을 1959년 3월까지 완성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과 함께 4년제 종합대학 설립을 인가받았다.

이 기념 표석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정문에 새겨진 ‘등용문’ 글자를 탁본하기로 한 2013년 2월 어느 주말이었다. 탁본 당일 ‘등용문’ 글자를 포함한 정문 전체를 세밀하게 조사하던 중, 정문 기단석에 ‘종합대학 승격 기념문’이라고 새겨진 표석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지금도 당시를 떠올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발견과 환희의 순간이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1955년 이래로 이 기념 표석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 왔건만, 우리들의 기억 저편으로 서서히 사라져 갔다는 사실에서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더할 뿐이었다.

지금도 여전히 이 기념 표석은 정문 기단석 정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것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나아가는 첫 항해’의 순간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잊혀지지 않기를 기원해 본다.



우리학교가 교육부 주관 ‘2026 외국인 유학생 취·창업 우수대학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글로벌교육지원팀 제공)

학생 지원, 이제는 역량을 쌓는 방식으로 유학생 취·창업 우수대학공모전 대상 수상

김민영 기자 myk5060@khu.ac.kr

우리학교가 교육부 주관 ‘2026 외국인 유학생 취·창업 우수대학 공모전’에서 일반대학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인증하는 ‘외국인 유학생 핵심역량 인증제(KHU-PASS)’를 기반으로 학업 적응부터 취업 준비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학교는 ‘외국인 유학생 핵심역량 인증제(KHU-PASS) 기반 취·창업 통합 성장 체계 구축’을 주제로 공모전에 참여했다. KHU-PASS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진로 설계, 취업 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역량 인증제다. 한국어·진로설계·글로벌 경험·문제해결 프로젝트 등 25개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자기 주도, 문제해결, 의사소통, 협업, 창의적 사고 등 5개의 핵심 역량과 연계해 운영한다.

글로벌교육지원팀 김은정 과장은 이번 수상의 가장 큰 배경으로 ‘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기존에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개별 운영돼 역량 축적과 취업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김 과장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이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역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점이 차별점”이라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량 중심으로 연결하는데 집중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교육부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수 증가에도 유학생 취업률(33.4%)은 전체 졸업자 평균(69.5%)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취업·정주를 연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며 “이에 유학생의 취·창업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 이전에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비교해 학생들의 실질적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다수의 프로그램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지만, 지난해 2학기 KHU-PASS 시범 운영 결과 208명이 참여해 7명이 최종 인증을 취득했고, 프로그램 참여 건수는

학기당 196건에서 527건으로 늘었다. 올해 1학기에는 참여학생이 277명으로 늘었고 현재까지 총 551건의 프로그램 참여 실적이 집계됐다. 최종 인증 취득자는 10명으로 확대됐다.

다만 취업 성과는 아직 확인 단계다. 김 과장은 “쿠팡이 지난해 2학기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인증을 취득한 학생 가운데 취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학생이 없다”며 “향후 인증 취득 학생의 실제 취업 여부도 추적해 제도의 성과를 살필 계획”이라 밝혔다.

글로벌교육지원팀은 앞으로 KHU-PASS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인증 요건과 포트폴리오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캠퍼스타운센터, 미래인재센터 등 유관 부서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KHU-PASS 실적으로 연계 인증하는 등 인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학생들이 입학부터 취업까지 자신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6 문화

연극영화학과 'dOnut'팀 제3회 대학연극제 베스트5 수상

곽승윤 기자 ksymickey05@khu.ac.kr

7월 10일부터 8월 2일까지 용인시에 열린 제3회 대학연극제에서 우리학교 연극영화학과 'dOnut'팀이 49개 팀과 경쟁해 베스트5상을 수상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서기정(연극영화학 2021), 강다연(연극영화학 2022), 임세현(연극영화학 2022), 이준영(연극영화학 2022), 권나린(연극영화학 2023), 김채영(연극영화학 2025) 외 12인으로 구성된 팀은 'dOnut' 작품을 선보였다. 이들을 만나 수상에 이르기까지 과정에 대해 물었다.

졸업 전 새로운 무대 도전 “그냥 해보자”며 뭉쳤다

시작은 3월 말이었다. 대학연극제 예선 공고를 본 연극영화학과 고학번 학생들 사이에서 “졸업 전 새로운 무대에 도전해보자”는 뜻이 모였다. 서 씨와 강 씨가 지인들에게 참가를 제안했고, 이들은 큰 부담 없이 “그냥 해보자”며 'dOnut'팀을 결성했다.

팀명이자 작품명인 'dOnut'은 연출을 맡은 강 씨가 골랐다. 강 씨는 “작품 선정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 등 어려움이 있었다”며 “여러 작품을 살펴본 중 'dOnut'의 시놉시스를 접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넛의 빈 가운데를 마음속 공허함에 빚낸 설정, 그중에서도 공허함을 채워야 할 빈칸으로만 보지 않는 관점이 강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다.

연극제는 사전 예매 단계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평소 학교 공연에서 지인을 주된 관객으로 맞이했던 것과 달리 낯선 관객들로 가득 찬 객석은 이들에게 큰 중압감으로 다가왔다. 평소에도 긴장을 많이 한다는 서 씨는 “낯선 분들이 객석의 대다수를 차지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이 긴장했다”며 “연기하는 팀원들을 보면서 나도 해내야겠다고 생각하다 보니 긴장감이 줄었다”고 말했다.

사극체 연습, 눈물까지 무대 완성까지 걸린 4개월

팀 구성부터 무대 완성까지 4개월 동안 쉽지 않은 시간이 이어졌다. 작품 'dOnut'은 일상적인 대화체 대신 각 인물의 개성

이 잘 드러나는 말투를 사용한다.

특히 서 씨가 맡은 '도둑' 역할은 사극체 대사가 많아 다소 낯설고 우스꽝스러운 표현이 잦았다. 서 씨는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표현 방식을 사용해 동료들 앞에서 연기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며 “다소 부끄럽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기까지 연습에 많은 시간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예상치 못한 문제도 생겼다. 공연에 대한 팀원들의 진심은 때로 과열된 열정으로 이어졌고, 이는 팀원 간 갈등으로 번졌다. 극 중에는 도둑과 알바생이 도넛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립하는 순간 ‘사랑한다’고 외치는 장면이 있다.

‘도둑’ 역할을 맡은 서 씨와 ‘알바생’ 역할을 맡은 권 씨는 장면 표현 방식에서 이견을

가운데가 뺨 뚫려 있어야 도넛반죽이 고루 익는다

‘가운데가 뺨 뚫려 있어야 도넛 반죽이 고루 익는다.’ 'dOnut' 팀원들이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한 가장 큰 메시지다. 강 씨는 “이 작품은 궁극적으로 도넛을 인간의 마음에 비유해 공허함을 바라보는 시각에 의문을 제기하는 작품”이라며 “공허함을 다루기보다 그 자체로 놔두는 것이 온전한 상태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메시지는 팀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강 씨는 “연극제가 끝난 직후 단체 활동이 사라지면서 공허함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 빈자리를 억지로 채우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시에서 열린 제3회 대학연극제에서 베스트5상을 수상한 우리학교 연극영화학과 'dOnut'팀이 손으로 도넛 모양을 만들고 있다. (사진=박류빈 기자)

보였다. 서 씨는 “각자 서러움이 쌓인 상태에서 연기에 온 마음을 쏟을 수 없다고 생각해 직접 다 같이 모여 이야기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서툰게 시작된 대화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고, 이후 서로를 믿는 하나의 팀이 됐다.

공연이 끝난 뒤 객석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다. 연출을 맡아 홀로 객석에서 무대를 지켜보던 강 씨는 공연 후 관객들로부터 “오늘 공연 너무 잘 봤어요”, “팀원들 너무 다 잘해요”라는 말을 들었다. 강 씨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 공연만 보고 좋은 말을 해주신 게 처음이라 너무 인상 깊게 남았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한 무대는 팀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 특히 서 씨에게 이번 연극제는 배우 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원동력이 됐다. 서 씨는 “지금은 배우를 계속할까 고민하기보다 일단 재미있고, 즐겁게 부딪혀 봐야 하는 때라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조연출을 맡은 김 씨는 “연극제를 통해 팀원들과 함께하는 경험에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졸업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dOnut'은 막이 내렸지만,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써내려 갈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Replica’로 풀어낸 자아 예디대 통합전시회

김재희 기자 jaylove0413@khu.ac.kr

【국제】예술디자인대학(예디대) 5개 학과(도예·디지털콘텐츠·시각디자인·연극영화·의류디자인)가 참여한 제9회 통합전시회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메자닌 북가좌에서 열렸다. 통합전시회는 예디대 학생들이 학과 간 협업으로 완성한 창작물을 선보이는 행사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Replica: 조각난 시선 끝의 재구성’을 주제로 디자인, 영상, 도예, 의상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작품 36점이 전시됐다.

예디대 권미진(디지털콘텐츠학 2023) 학생회장은 이번 전시 주제인 ‘Replica’가 단순한 ‘원본 복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우리가 살아가며 만들어진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기억과 경험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하나의 Replica”라며 “이미 완성된 결과보다 변화하고 재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체성을 고민하는 지금의 학생들과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주제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시회 참여한 ‘POST-ER’ 팀은 관람객이 직접 포스터를 제작할 수 있는 참여형 작품(POST-ER)을 선보였다. 태블릿에 문구를 입력하면 단어들이 실시간으로 조합돼 하나의 포스터가 완성되는 방식이다. 작품 제작에 참여한 김경민(시각디자인학 2025) 씨는 “관람객들이 누구나 창작자가 돼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선배들과 함께 전시를 준비하며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욕망의 신을 중심으로 열 명의 정령이 지키는 가상의 신전을 구현한 ‘파움’ 팀의 (FRAGMENTA VOTI)도 전시됐다. 작품을 제작한 정지원(디지털콘텐츠학 2025) 씨는 “관람객들이 직접 토템을 쌓으며 작품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관람객들이 지금 자신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전시의 일부가 되어보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엔 만날 기회가 적었던 다른 학과 학생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어 좋았다”며 “통합전시회를 통해 학과 간 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친구의 작품을 응원하기 위해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 이하은 씨는 “게임 형식으로 제작된 작품이 가장 인상 깊었다”며 “지금 출시돼도 될 정도로 완성도가 높아 놀랐다”고 말했다. 또한 이 씨는 “다양한 매체와 표현 방식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어 재밌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 회장은 “이번 전시가 학생들에게는 서로의 작업을 이해하고 교류하는 계기가 되고, 관람객들에게는 예술을 폭넓게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개최 소감을 전했다. 이어 “학교와 조금 떨어진 전시장임에도 많은 학우와 교직원분들께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사설

설득하고 협상하는 학생자치

오는 2학기부터 학점포기제가 전 교과목 대상으로 확대된다. 일반학과 기준 7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은 졸업 때까지 최대 6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지난 4월 취재 당시 양캠 총학의 학점지우개 도입에 관해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학교의 입장을 고려하면 주목할 만한 변화다.

이번 결과에서 눈여겨볼 점은 제도 변화 자체보다 과정에 있다. 총학은 설문을 진행해 3,822명의 재학생 의견을 모으고, 제도가 성실히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 낮은 성적을 만회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학교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성적 구간별 의견을 분석했다. 주관식 응답까지 담은 30쪽 분량의 보고서를 만들어 학교에 전달하기도 했다.

출범 당시 목표했던 ‘학점지우개’라는 별도의 제도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학점포기제를 확대하는 방식을 택한 것도 행정·전산 부담을 줄이면서 제도 도입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단순히 학생들의 요구를 학교에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가 우려하는 지점을 파악한 뒤 그에 맞는 근거와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확대된 학점포기제가 시행되면 포기한 과목의 재수강이 가능해지고, 필수·인기과목의 수강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캠 총학생회장 역시 이를 “충분히 합당한 우려”라고 인정하며 2학기 동안 개선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제도를 관철한 뒤 그 부작용까지 점검하는 것이 제도 변화를 완성하는 다음 과제다.

이번 학점포기제 확대는 학생들의 요구를 구체적인 근거로 만들고 학교의 우려에 대응하는 과정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

음을 보여줬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험을 다른 사안에서도 이어가는 것이다.

총학 임기는 한 해에 그치지만 학사제도와 등록금, 교육환경은 학생들의 대학생활 내내 영향을 미친다. 학점포기제 확대가 현재 재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라면, 다전공 의무화는 앞으로 입학할 학생들의 대학생활까지 좌우할 문제다. 아직 큰 틀만 마련된 다전공 의무이수제에 대한 학생 사회의 입장을 정리하고 학교에 전달해야 한다. 특정 학과 쏠림 현상에 대비해 사전 수요 예측과 충분한 준비를 요구하는 것도 총학의 몫이다.

등록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총학은 이미 등록금 협상 대응 TF를 꾸리고 학무부총장 정기협의체와 재정운용설명회 일정을 예고했다. 오는 9월 총장과의 대화

에서는 등록금 대원칙 수립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것은 그 구조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일이다. 인상에 대한 찬반을 정하기보다, 학교가 제시하는 인상 근거와 재정 운용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에서 편성한 예산이 실제로 집행됐는지, 학생들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학점포기제에서 보여준 좋은 선례가 다전공 의무화와 등록금 협상에서도 이어져야 한다. 학생들의 요구를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학교의 논리를 확인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협상하는 것. 단기적인 공약 이행을 넘어 학생들의 대학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꾸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 총학이 보여줘야 할 학생자치의 모습이다.

세시봉

존중의 방식

서라수 기자
sooxoosoo@khu.ac.kr



“‘호프’가 훌륭하다는 것은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형편없는 영화라는 것은 당신의 의견입니다.”

호프에 별점 4점을 매겼다가 악플과 조롱에 시달리던 한 평론가가 남긴 말이다. 평소라면 눈길도 안 줬을 영화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 대체 얼마나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이길래 이렇게까지 화제인가 싶었다.

뜬금없이 사람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다. 누군가는 올해 최고의 영화라며 N차 관람까지 나섰고, 누군가는 340만 관객을 넘긴 지금까지도 혹평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런데 관람평을 찾아볼수록 정작 눈에 들어온 건 영화 내용이 아니라 대댓글이었다. 좋았다는 사람에게는 ‘영화를 볼 줄 모른다’는 조롱이, 별로였다는 사람에게는 ‘평론가도 좋다는데 네가 뭔데’라는 비아냥이 달렸다. 심지어는 ‘호프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병원에 가라’는 댓글까지 봤다. 댓글의 대부분은 영화가 아니라 서로의 취향을 헐뜯는 말 뿐이었다. 정작 영화 내용은 뒷전이었던 것이다. 관람평을 봤음에도 나는 지금까지도 ‘호프’가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영화를 두 번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한 번은 남의 시선을 따른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관객 10명 중 6명(60.2%)이 타인의 평점과 리뷰를 참고해 영화를 고른다고 답했다. 정답을 확인하듯 관람평에 의존하는 습관이 갖는 것이다. 그 다음에야 내 취향을 들여다보고 진짜 결정을 내린다. 이때 누군가에게 지루했던 장면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심금을 울리는 명 장면이 된다.

취향에는 틀림이 없다. 단지 다를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타인의 감상을 오답 처리하는 일에 열을 올릴까. 결국 영화를 본 사람은 나다. 스크린 앞에 앉아 두 시간을 견딘 것도 어느 장면에서 어떤 감정을 느낀 것도 나의 몫이다. 그러니 각양각색의 감상이 존재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제는 내 감상이 옳다는 확인보다 너의 감상도 존재한다는 수용이 필요할 때다. 취향을 존중한다는 건 동의한다는 게 아니다.

존중은 나와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에서 시작한다. 취향은 채점의 대상이 아니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이공계 인프라의 숙제

공간을 넘어 경쟁력으로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일손은 부족한데 자리는 더 비좁다”, “타 대학 연구실을 다녀오니 우리 연구실이 더 작아 보이더라.” 대학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선배들에게 듣는 말이다. 밤낮없이 실험실을 오가는 연구자들은 부족한 연구 공간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

우리학교는 연구 환경과 인프라 측면에서 타 대학 이공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라는 평가를 받았다. 종로학원 임성호 원장은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경희대 이공계 분야의 대외적인 브랜딩마저 타 상위대학에 비해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기에 최근 우리학교가 공간 문제 해소를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을 예고한 점은 고무적이다. 공대분과와 미래과학관을 조성해 상당 부분을 공동연구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GPU센터와 양자플랫

폼 등 첨단 연구장비도 구축해 융합 연구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반도체공학과 윤주영(전자공학) 교수 역시 “첨단분야는 융합연구가 많아 공동연구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착공 소식이 알려진 분과과 달리 미래과학관 조성은 지지부진하다. 미래과학관의 경우 이미 2018년부터 논의됐지만 사업비 증가와 첨단장비 관리 등의 이유로 수차례 미뤄진 바 있다. 오랜 기간 지연된 만큼 미래과학관 착공에 속도를 내야 한다. 다만 건물을 세우고 공간을 늘리는 것만으로 인프라 확충이 끝나지 않는다. 새롭게 마련한 공간과 장비를 연구자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까지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첨단장비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냉각 설비, 화재 방지 시설은 물론 지속적인 유지·관리까지 뒤따라야 비로소 제대로 된 연구인프라가 되기 때문이다.

충분한 연구공간과 첨단장비가 실제 연구 성과로 이어지고, 다시 우리학교 이공계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투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만평 열악한 연구 환경

교시
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신동면 | 편집장 권도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주)에스엠씨앤피

혜정박물관, 아이들의 손끝에서 이어진 대동여지도

김재희 기자 jaylove0413@khu.ac.kr

혜정박물관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지도로 보는 조선: 대동여지도 탐구와 퍼즐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지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시작으로 고지도와 천문도 전시 관람, 대동여지도 퍼즐 맞추기, 경조오부도 색칠하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구성됐다. 8월 동안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우리신문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프로그램 현장을 찾아 학생들이 지도를 통해 과거 사람들의 세계를 알아가는 과정을 따라가봤다.

스마트폰에서 고지도로 지도를 따라가는 시간여행

한여름 햇살이 내리쬐는 지난 5일, 국제캠 중앙도서관 4층에 위치한 혜정박물관 교육실에 학생들이 모였다.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학생들은 김은우 강사를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다. “친구들은 낯선 곳에 가는데 길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김 강사의 질문에 “스마트폰 지도 앱을 봐요!”라며 여러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김 강사는 학생들의 대답에 미소를 지으며 “오늘은 지도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은 우리가 익히 아는 지도에서 출발해 시간을 거슬러 수백 년 전 고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졌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지도는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본 뒤 학생들은 시간을 거슬러 과거의 지도로 시선을 옮겼다. 김 강사는 고지도가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과 함께 지도에 담긴 지명과 행정구역 등의 정보를 설명하며, 옛 지도 역시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기록한 방식이 담긴 자료임을 알려줬다. 학생들의 시선이 화면 속 지도를 따라갔다.

땅에서 하늘까지 지도 속 세계를 만나다

수업을 마친 학생들은 실제 고지도가 전시된 전시실로 이동했다. 전시장 벽면에는 9세기 요동성도를 비롯해 조선팔도고금총람도, 곤여만국전도, 지구전후도,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와 동여도 등 고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고지도가 시



학생들이 대동여지도 퍼즐 조각을 맞추는 데 열중하고 있다.

(사진=김재희 기자)

대별로 나란히 설명돼 있었다. 학생들은 앞서 교육실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지도 가까이 얼굴을 가져가 작은 글씨와 기호를 뚫히 들여다봤다. 또한, 설명을 들으며 “대동여지도!”, “경조오부도” 외치기도 하며 아는 지도가 나올 때마다 반가워하기도 했다.

전시 관람은 김가영, 이윤채, 전승우 강사의 질문과 학생들의 답변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지구는 무슨 모양일까요?”라고 묻자 학생들은 “둥글어요!”라 답했다. 강사들과 학생들은 함께 전시실의 지도를 바라봤다. 김 강사는 “지도안에 어떤 것들이 보여요?”라 묻자 “강이랑 바다!”, “산!” 학생들은 경쾌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 강사는 “지도는 시대를 거둬다듬어 달라졌지만, 단순히 땅의 모양만을 담은 것은 아니다”라며 “그 안에는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한 방식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도 함께 담겨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동여지도에 대한 전시공간으로 향하며 이 강사는 학생들에게 “대동여지도는 22첩으로 이뤄졌다고 아까 배웠었다”며 배운 내용을 상기시켰다. 이어 “지도를 모두 이어 펼치면 여러 사람이 나란히 누울 만큼 긴 지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생각보다 큰 규모의

지도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전시는 땅 위의 지도에서 하늘로도 이어졌다. “우리 친구들은 별자리 알아요?”라는 김 강사의 질문에 “난 게자리!”, “전갈자리!”, “물병자리!”라며 학생들은 각각 자신들이 아는 별자리를 외쳤다. 김 강사는 “이번엔 별자리 지도를 살펴볼 시간이에요”라 말하며 학생들을 조선시대 하늘의 별자리와 천체의 위치를 기록한 지도인 ‘천문도’가 전시된 공간으로 이끌었다. 김 강사는 “옛사람들은 하늘을 또 하나의 길잡이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전시실에서 바라본 조선시대 ‘천문도’에는 당시 천문학과 농경 생활, 계절에 대한 이해가 함께 담겨 있었다. ‘천문도’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이 저마다 두 개의 별을 띄운 것처럼 반짝였다.

조각조각 맞추고 알록달록 채우고

전시 관람을 마친 학생들은 다시 교육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대동여지도가 그려진 퍼즐이 학생들 앞에 놓였다. 학생들은 전시실에서 눈으로 살펴본 대동여지도를 이번에는 직접 손으로 맞춰보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옆에서 도와주는 강

사님들에게 “여기가 어디예요?”라고 묻기도 하면서 퍼즐 조각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지도를 완성해 나갔다.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대동여지도의 전체 모습이 드러났다.

이어 조선시대의 행정구역을 나타낸 ‘경조오부도’를 직접 색칠하는 활동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각자 원하는 색을 골라 지도 속 행정구역을 채워나갔다. 앞서 전시에서 살펴본 지도를 직접 완성하고 꾸미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고지도를 눈으로 관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도에 담긴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체험했다. 어머니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 송승이 학생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대동여지도 퍼즐을 꼽았다. “오늘 너무 재밌었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던 송 학생의 표정에서도 이날 프로그램에 대한 즐거움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프로그램의 마지막에는 학생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을 적는 설문이 진행됐다. ‘퍼즐 맞추기’, ‘전시 관람’처럼 하나의 활동을 적은 답변도 있었지만, 한 학생은 지도에 대해 배우는 시간부터 전시실 관람, 퍼즐 맞추기와 색칠 활동까지 프로그램에서 경험한 모든 과정을 답변으로 적었다. 지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제 고지도를 관람

한 뒤, 직접 지도를 완성하는 체험까지 이어진 하루의 과정 전체가 학생에게는 하나의 배움으로 남은 셈이다.

박물관을 넘어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교육

우리학교 혜정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고지도 전문 박물관으로, 동서양의 희귀 고지도를 통해 세계 속 한국의 모습을 연구하고 조명해 온 공간이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오혜인 학예사는 “대동여지도를 단순히 보는 유물로 남기기보다 지리와 역사에 대한 인지적 학습부터 창의성·협업·정서적 공감까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 학예사는 “혜정박물관이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배움·소통·정서적 성장의 공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자원과 대학박물관의 전문성을 연결해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하계방학에는 박물관을 찾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이어, 문화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아동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다.